

# 『高麗記』와 高句麗 情勢\*

譯 김효진\*\*

- 
- I. 머리말
  - II. 『高麗記』로의 評價
  - III. 『高麗記』의 構成과 그 性格
  - IV. 『高麗記』와 『奉使高麗記』
  - V. 『高麗記』와 唐의 高句麗 征討
  - VI. 맺음말
- 

## I. 머리말

중국인이 남긴 고구려 관련 古記錄에는 귀중한 것이 적지 않다. 雍公叡가 唐 張楚金 撰 『翰苑』(660년)에 註記·引用한 『高麗記』(『高麗記』라고도 씀)도 그 하나이다. 1922년에 內藤湖南이 太宰府 天滿宮 西高辻家에서 전하는 古寫本 殘卷인 『翰苑』卷30을 영인·소개하였다.<sup>1)</sup> 『高麗記』가 처음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이 책이 전하는

---

\* 이 글은 武田幸男, 1994, 「『高麗記』と高句麗情勢」, 『(于江權兌遠教授停年紀念論叢) 民族文化의 諸問題』, 세종문화사, 119~144쪽을 번역한 것이다.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1) 京都帝國大學文學部印行, 1922, 影印『翰苑』. 漢文은 內藤虎次郎, 1922, 「影印本『翰苑』跋」, 『翰苑』, 京都帝國大學文學部印行. 日本文은 內藤虎次郎, 1922, 「舊鈔本翰苑に就きて」, 『支那學』 2-8(1970, 『內藤湖南全集』 第7卷, 筑摩書房). 그 뒤 寫本殘卷의 影印·釋文·校訂·解釋·解

高句麗의 정치·사회 제도에 관한 귀중한 내용은 高句麗史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구려 정치·사회사의 주요한 과제에 도전한 많은 연구는 모두 이 『高麗記』를 무시할 수 없기에 이르렀다.<sup>2)</sup>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高麗記』의 찬술자와 찬술년도 등 그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는 종래 그저 막연하게 唐 초기, 고구려 말기라고 해 왔을 뿐이었다. 『高麗記』가 641년에 당에서 고구려로 奉使한 正使의 찬술이고, 兵部 職方郎中職이었던 陳大德의 찬술인 점을 밝힌 吉田光男氏의 지적<sup>3)</sup>은 그렇기 때문에 높게 평가된다. 즉 진대덕은 고구려로 奉使하는 도중 현지에서의 실제 견문에 근거하여 『高麗記』를 찬술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뢰 있는 기사 내용이라고 봐도 좋다. 그 중요성이 이전보다도 더욱 확인된 것이다.

이 성과를 기본 근거로 하면서 아직 조금 더 논의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 첫째는 중국에서 긴 기간에 걸쳐 『高麗記』를 높게 평가한 사실로, 그 평가의 계승 과정을 追求해보고자 한다. 둘째는 同書의 구성과 그 성격 등으로, 『翰苑』 註 이외 同書 逸文도 수집하고 거기

---

說로는, 竹内理三, 1977, 『翰苑』, 吉川弘文館; 湯淺幸孫, 1983, 『翰苑』, 國書刊行會가 간행되어 있다. 本稿에서 언급한 『翰苑』 및 그 註의 原文에 대해서는 이 諸書 및 본고 말미의 부록 「『高麗記』의 項目別 校訂逸文 22條」를 참조바란다.

- 2) 『高麗記』를 다룬 주요한 연구 성과로는, 池内宏, 1926, 「高句麗の五族及び五部」, 『東洋學報』 16-1(1951, 『滿鮮史研究』 上世編, 祖國社); 內藤虎次郎, 1929, 「近獲の二三史料 (六)」, 『讀書叢錄』, 弘文堂(1970, 筑摩書房); 末松保和, 1932, 「新羅の軍號『幢』について」, 『史學雜誌』 42-12; 矢澤利彦, 1954, 「高句麗の五部について」, 『埼玉大學紀要』 人文社會科學編 3; 李弘植, 1956, 「淵蓋蘇文に對する若干の存疑」,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一潮閣(1971, 『韓國古代史の研究』, 新丘文化社); 金哲垞, 1956, 「高句麗·新羅の官位組織の成立過程」,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一潮閣; 宮崎市定, 1959, 「三韓時代の位階制について」, 『朝鮮學報』 14(1976, 『アジア史論考』 中, 朝日新聞社); 山尾幸久, 1974, 「朝鮮三國の軍區組織」, 『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舍 등 많은 논고가 있으며, 또 拙稿, 1978, 「高句麗官位制とその展開」, 『朝鮮學報』 86(1989, 『高句麗と東アジア』, 岩波書店)도 있다.
- 3) 吉田光男, 1977, 「『翰苑』註所引『高麗記』について」, 『朝鮮學報』 86

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는 『高麗記』와 『奉使高麗記』의 同으로, 두 서적의 관계에 유의하면서 이 부분을 음미해보고자 한다. 넷째는 『高麗記』가 당시에 가졌던 현실적인 의미로, 唐의 고구려 征討와의 관련에 대해서도 접근해보고자 한다.

## II. 『高麗記』로의 評價

이미 밝혔듯이 『翰苑』 註 所引의 『高麗記』는 「『高麗記』曰」이라는 冒頭句로 도입하여 모두 13條가 열거된다. 다만 그 중 고구려 5部に 관한 1조항은 冒頭句가 없고, 오히려 「『魏略』曰」로 도입하는 모양을 취한다. 아무튼 여기에는 誤脫이 있으므로<sup>4)</sup> 5부 기사는 그대로 13조에 포함하여 고찰해도 좋다.

이 13조를 다른 여러 사료와 차례로 대조하기 위해, 약간 세분하고 구체적인 항목별로 기재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官位, ②文官, ③外官, ④武官, ⑤五部, ⑥南蘇城, ⑦建安城, ⑧國內城, ⑨遼東城, ⑩馬多山, ⑪焉骨山, ⑫銀山, ⑬馬訾水, ⑭黃水, ⑮領地, ⑯錦布의 16항목이다. 지금까지 인용되어 남겨진 이 항목들은 『高麗記』 모든 항목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터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먼저 ①~④는 (a)官名, ⑤는 (b)部名, ⑥~⑨는 (c)城名, ⑩~⑫는 (d)山名, ⑬·⑭는 (e)水名, ⑮는 (f)版圖, ⑯는 (g)衣服과 같이, 정연하게 각 분야를 다루고 있는 점, 게다가 그 항목의 내용이 아주 특수하고 구체적이며 풍부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뒤에서 『高麗記』의 성격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唐 章懷太子는 비교적 이르게 『高麗記』를 주목한 인물이다. 태자는 范曄 『後漢書』에 註를 달고 이것을 676년에 奉上했는데, 그 주에

4) 池內宏, 1926, 334쪽. 다만 「魏略曰」전에 「高麗記曰」을 포개었다고 하는 池內說은 부적절하고, 『魏略』기사가 끝난 뒤, 즉 「五部皆貴人(下略)」앞에 「『高麗記』曰」을 보입하면 좋을 것이다.

①五부와 ②文官이라는 2항목이 있다. 다만 『高麗記』 원문에 비하여 현저히 간략하고, 원문에서 직접 채록한 것인지, 원문을 인용한 『翰苑』 所引 註 등에서 채록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단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高麗記』에 대한 높은 평가이다. 진대덕이 奉使하고 불과 35년 뒤의 일이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唐 杜佑 『通典』 卷186 邊防2 東夷 下 高句麗 條의 기사이다. 여기에서도 기사의 간략함이 눈에 띄는데, 지금까지 ①官位, ②文官, ③外官, ④武官, ⑤五部, ⑥馬訾水(⑥의 순위는 뒤에 수정함)의 6항목이 자주 언급되어 왔다. 『翰苑』 註 所引 『高麗記』가 학계에 알려지기까지 이 서적이 고구려의 기본적인 여러 제도에 관한 가장 상세하고 근본적 사료로 되어 왔다. 따라서 종래 주요한 여러 연구 중에서 이 점을 무시한 적은 없었다. 이 사료가 例의 『翰苑』 註에 근거한 부분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馬訾水の 위치에 대해 同書 註에서는 보이지 않던 「遼水東南四百八十里」라는 아홉 글자가 주의된다. 이 아홉 글자가 同書 註 이외의 내용에 근거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고, 굳이 말하면 『高麗記』 원본에 근거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것이다. 실은 後述하듯이 『通典』은 『高麗記』를 직접 참조하고 同書에서 上記의 6항목과는 다른 복수 항목을 인용하고 있다. 이를 아울러서 고려하면, 『通典』이 가지는 사료적 가치의 확고함이 追認됨과 동시에 새삼 『高麗記』에 대한 평가가 높았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단 주지한대로 『通典』의 성립 연대에는 여러 설이 있고 初稿는 768~771년경에 성립했다고 한다. 우선 여기에서는 편의상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801년을 따르고자 한다. 진대덕의 봉사로부터 대략 160년 뒤에도, 『高麗記』는 여전히 무시되지 않고 오히려 한층 중시되었던 것이 확인된다.

다음은 『舊唐書』 卷199 上 東夷傳 高麗條이다. 이전부터 여기에는 ①官位와 ②外官이라는 2항목이 알려져 있다. 아주 간략한 기사에 지나지 않지만 이미 지적되어 있듯이<sup>5)</sup> 이 기사는 『隋書』 동이전 고려

5) 吉田光男, 1977, 7쪽.

조를 참고로 하면서, 『通典』 등에는 보이지 않는 『高麗記』 기사를 채록하고 있다. 後晉의 劉昫 등이 『舊唐書』를 奉撰한 945년 당시, 진대덕의 봉사에서 300년 남짓 경과해서도 여전히 同書에 대한 높은 평가는 변하지 않았다.

宋代에 들어서 974년 薛居正撰 『舊五代史』와 1060년 歐陽脩 등의 奉勅撰 『新唐書』가 연이어 성립하였다. 前書 卷38 외국전 고려조에는 역시 ①官位와 ②外官의 2항목이 보이지만 이들 모두 『舊唐書』의 節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後書인 『新唐書』 卷220 동이전 고려조에 ①馬訾水, ②官位, ③文官, ④外官, ⑤武官, ⑥五部の 6항목(①~⑥의 순위는 뒤에 수정함)이 확인되며, 항목 대부분은 『通典』의 그것에 필적한다. 그리고 이들 항목의 전거에 대해서는, 先行하는 『通典』과 『舊唐書』는 물론 분명 『高麗記』에 근거했다는 지적이 있다.<sup>6)</sup> 그 근거로 된 ⑥五部 항목은 앞선 장희태자의 『後漢書』 주에 의거해도 가능한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확실히 그 지적이 맞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지만, 과연 그러하다면 진대덕의 봉사 이래 대략 420년간 『高麗記』는 世傳되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용되어 왔고 또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

『新唐書』의 경우는 명확하지 않은데, 『高麗記』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확인되는 사례는 현재로서 979년에 宋의 樂史가 편찬한 『太平寰宇記』 卷173 四夷2 東夷2 高句麗國條이다. 同條에는 例의 ①官位, ②文官, ③外官, ④武官, ⑤五部, 거기에 ⑥馬訾水라고 하는 최다 6항목(⑥의 순위는 뒤에 수정함)이 보인다. 이들은 대체로 『通典』에 의거하고 그것도 대부분 傳寫로 보이며 문자의 출입도 적지 않다. 단 여기에서 눈에 띄는 점은 同條 마지막에

按「高麗記」云，分前漢樂浪·玄菟郡之地，自後漢及魏爲公孫氏所據，至淵滅，西晉永嘉以後復入高麗，其不耐·屯有·帶方

6) 吉田光男, 1977, 7~8쪽.

- 安布·平郭·安平·居文·龍城, 皆漢二郡之屬縣, 分則朝鮮
- 濊貊·沃沮之地, 是也.

라고 하는 按文이 있다. 여기에서 「高麗記」라는 세 글자가 보이고, 더욱이 『翰苑』 註 所引 『高麗記』의 ⑮領地에 관한 내용인 「今, 高(麗)國兼有朝鮮·濊貊·沃沮之地也」에 대응하는 ⑦領地 항목(⑦의 순위는 뒤에 수정함)도 확인되는 것이다. 즉 위에서 든 按文은 『高麗記』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간과해 온 『通典』 고구려조의 주, 즉

漢樂浪·玄菟郡之地, 自後漢及魏爲公孫氏所據, 至淵滅, 西晉永嘉以後復陷入高麗, 其不耐·屯有·帶方·安市·平郭·安平·居龍·文城, 皆漢二郡諸縣, 則朝鮮·濊貊·沃沮之地.

도 당연히 同書 同項目의 대응 기사임에 틀림없다. 오히려 按文이 설명적 문자를 약간 보입하고 있는 만큼 『通典』이 원문에 가깝다고 판단된다.<sup>7)</sup> 이상을 통해 『太平實字記』를 매개로 하면서 ⑮領地 항목을 재확인한 뒤 새롭게 그 원문을 보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 무렵은 이미 고구려가 멸망한지 300년 여 지났고, 당에서 송으로 크게 변하고 있었다. 송도 맹위를 떨치는 金에는 대항하지 못하고, 이윽고 靖康의 변이 일어나 南遷하였다. 변란 직전에 高麗에 봉사한 提轄官인 徐兢은 1123년 당시 현지에서의 견문을 바탕으로 『宣和奉使高麗圖經』 40권을 남겼다.<sup>8)</sup> 同書 卷7 冠服 令官服條에 例의 ①官位, ②文官, ③外官, ④武官 등 4항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先行한 관련 서책 특히 『通典』이라고 생각된다. 서공은 7세기에 멸망한 고구려와 10세기에 성립한 고려의 강한 연속성을 인식하고, 上

7) 말할 필요도 없이 『太平實字記』의 「安布」는 「安市」이고, 「居文·龍城」은 「居就·文城」의 誤寫이다. 또 『通典』의 「居龍」도 「居就」의 誤寫이다.

8) 今西龍의 교정 및 후기가 있다(1932, 『宣和奉使高麗圖經』, 近澤書店).

記의 官制가 당시에 그대로 행해지고 있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왕조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든, 관제도 오해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480년 전의 견문기가 아직 남아있고 이때 봉사자에게 승계 원용되었던 것이다.

반대로 당시의 사정을 고려해보면 장희태자에 앞서 이를 높게 평가한 사람들이 있었다. 즉 모든 『高麗記』 관계자이다. 먼저 『翰苑』에 주를 붙이고, 주에 『高麗記』를 인용한 옹공예이다. 그는 『翰苑』이 찬술된 「大唐顯慶五年三月二十日癸丑」인 660년, 바로 백제가 멸망한 그 해로부터 그다지 떨어지지 않은 무렵이거나 혹은 고구려 멸망을 전후한 무렵에 付註했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그 이전에 『翰苑』 찬술자인 장초금 본인을 잊어서는 안된다. 『翰苑』 本文과 그 註와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당연하다. 池內宏은 同書 本문의 「官崇九等」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문의 「바탕이 만들어 진 곳은 高麗記이다」라고 지적하였다.<sup>9)</sup> 여기에 추가하여 이 지점에서는 『高麗記』의 기술 순서에 따라 『翰苑』 본문이 서술되고 있는 경향(後述)에 대해서 미리 지적해 두고자 한다. 즉 먼저 『高麗記』가 있었으며, 그는 여기에 근거하여 『翰苑』 고려조의 본문을 썼다고 하는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그러하다면 『高麗記』를 높게 평가한 최초의 인물은 현재 확인되는 한 장초금인 것이다. 진대덕의 봉사로부터 불과 2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상 本章에서는 진대덕이 641년의 견문을 찬술한 『高麗記』는 찬술 직후부터 당·송대의 긴 기간을 통틀어서 줄곧 높은 평가를 받아 온 경과를 밝혔다. 중국 본토에서는 『宣和奉使高麗圖經』 찬술 직후, 1126~27년 정강의 난에 의해 同書 圖經의 그림이 없어졌다. 그 상황에서 『翰苑』 그리고 무엇보다 『高麗記』 그 자체도 모두 亂 와중에 湮滅되고 말았다고 한다. 逸書 『高麗記』를 인용한 일본의 현존 『翰苑』은 『翰苑』 逸文 3조를 인용하는 滋野貞主 『秘府略』의 성립연

9) 池內宏, 1926, 336쪽.

대인 831년(天長 8년, 唐 太和 5년)에서 봐도, 同年보다 이전에 일본으로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지금 傳存하는 것은 천하의 孤本으로 유명한 『翰苑』 卷30 蕃夷部の 零本一部(西高辻本) 뿐이지만 이는 정말로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Ⅲ. 『高麗記』의 構成과 그 性格

중국에서 오랫동안 높게 평가 받아온 것은 『高麗記』가 뛰어난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시 同書의 구성을 보고, 이를 근거로 하여 그 성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미 정리했듯이 가장 다수의 항목을 수록하고 있는 것은 『翰苑』 註 所引 『高麗記』 이고 모두 16항목에 달한다. 그 외에는 『通典』과 『太平寰宇記』의 7항목, 다음은 『新唐書』의 6항목이다. 모두 『翰苑』 註 所引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서책은 문제되지 않는다. 항목 수의 寡多와도 관련있지만 前記 『翰苑』 주는 다른 서적의 항목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 그 독자의 항목이 있다는 점, 다른 서적의 항목 배열 순서와 같거나 그것과는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독자 항목이라는 것은 다른 서적에는 보이지 않는 (c)城名の 4항목, (d)山名の 3항목, (e)水名の 1항목, (g)衣服의 1항목이다. 또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은, 『後漢書』 주의 ②文官과 ①五部와의 순서 및 『新唐書』의 ②官位~⑥五부와 ①馬訾水와의 순서가 다른 서적과는 다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後漢書』 본문과 『新唐書』의 서술 양식에 규정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예외는 있지만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때문에 『翰苑』 본문은 『高麗記』의 기술 순서에 따라 서술된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여 『翰苑』 주는 역시, 『高麗

---

10) 內藤虎次郎, 1922, 122쪽.

記』 원문의 구체적인 항목과 순서 등 그 구성을 고려할 때 기본 사료로 된다.

그러나 여기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점은 『通典』이다. 주지하듯이 『通典』도 『翰苑』주와 같은 순서로 각각 대응하는 (a)官名の 4 항목, (b)部名の 1항목, (e)水名の 1항목, (f)版圖의 1항목으로 합하여 7항목을 공유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두 서적이 공유하는 (b)部名の 五部 항목과 (e)水名の 마자수 항목 사이에 또 독자 내용의 項目群이 각각 발견된다고 하는 점도 공통된다. 『翰苑』주의 독자 항목에 대해서는 앞서 다루었지만, 『通典』의 그 부분은,

碣石山，在漢樂浪郡遼城縣，長城起於此山，今驗長城，東截遼水，而入高麗，遺趾猶存。又平壤城東北有魯陽山，魯城在其上。西南二十里有葦山，南臨涇水。其大遼水，源出東北靺鞨國西南山，南流至安市。小遼水源出遼山，西南流，與大遼水會。大梁水在國西，出塞外西南流，注小遼水。

이다. 이를 정리하면 선행하는 5항목에 이어서, (d)山名인 ⑥碣石山, ⑦魯陽山(魯城), ⑧葦山, (e)水名인 ⑨大遼水, ⑩小遼水, ⑪大梁수로 된다. 따라서 前章에서는 『通典』의 마자수 이하 순위를 ⑥ 등으로 소개했지만, 여기에 이르러 同書 구성에 대응하여 ⑫馬訾水, ⑬黃水, ⑭領地로 정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아가 이들 독자의 6항목에 대해서 점검해보고자 한다. 이들 항목은 첫째, 선행 항목을 받고 또 후속 항목을 도입해 가며 끊임없이 전체 기술 구성의 연속성이 강한 것. 둘째, 여러 항목을 정리하는 각 분야의 순서가 (b)部名→(d)山名→(e)水名으로 이어지고, 이미 알려진 (b)部名→(c)城名→(d)山名→(e)水名이라고 하는 순서에 모순되지 않는 것. 셋째, 각 항목의 문장이 특수 구체성에 풍부하고, 그 기술이 모두 같은 형태와 형식을 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이 항목들이 『高麗記』 본문의 순서에 따라 원문을 모방한 것을 가리킨다. 즉 『通典』은 『翰苑』註 등 없어서 버린 원문 중, 그 6항목을 본래 순서대

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보면, 이 6항목은 『太平寰宇記』에 그대로 계승되고, 또 『新唐書』의 大遼 [水], 小遼 [水], [大] 梁水 총 3항목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두 『通典』 문장에 비해서 다소의 출입이 있으면서 대체로 『通典』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대로 『太平寰宇記』는 『高麗記』를 직접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 여기에 이르면, 두서적의 항목 기재 순위도 새롭게 확인된 항목을 더하여 각각 적합하게 수정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상 밝힌 사실을 《『高麗記』 項目 引用書의 系統表》로 정리해 둔다. 여기에 의거한 『高麗記』의 구성을 고찰해보면, 복원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은 官位에서 錦布까지 22항목에 달하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전 분야는 (a)官名에서 (g)衣服까지의 7분야에 걸쳐 있다. 그리고 표시한 바와 같은 순서로, 정연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표시되어 있듯이 研究史上에서 지금까지 중시되어 온 官名·部名도 물론이지만, 여기에서 특히 주의를 끄는 부분은 城名·山名·水名의 15항목으로 전체에 7할 가까이를 점한다. 찬술자 진대덕은 고구려의 城, 山, 水(河川)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해석이 있다. 그는 정보수집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고구려로 봉사하고 唐의 對高句麗 정책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高麗記』는 그의 활동보고서라 할 수 있고,<sup>11)</sup> 아마도 이 점은 틀림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진대덕은 국가적 첩보 활동자이고, 『高麗記』는 스파이 복명서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에 관련하여, 다음으로 다섯 가지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11) 吉田光男, 1977, 22~23쪽.



每有番客到京，委鴻臚訊其人，本國山川・風土，爲圖以奏焉，副  
上於省。其五方之區域・都鄙之廢置・疆場之爭訟者，舉以正之。

라고 한다. 요약하면 군사적 정보를 장악하는 일이다. 특히 주목되  
는 점은 그 업무가 국내의 및 「四夷」 「外夷」도 두루 살피는데 있  
으며, 여러 나라의 「山川・風土」 관련 정보를 鴻臚寺를 통해서 繪圖  
도 첨부하여 수집한다는 사실이다. 고구려와 엮혔다가 붕괴한 隋의 최  
후를 숙지한 唐에 있어서 고구려는 가장 주시해야 할 外夷 중 하나였  
다. 그리고 실제 그에게 주어진 것은 『新唐書』 東夷傳 고려조에 의  
하면, 640년 12월 고구려사 입조에 답한 唐의 사자라고 하는 임무였다.  
그것은,

[高麗] 遣太子桓權入朝，獻方物。帝厚賜賚，詔使者陳大德，  
持節答勞，且觀豐。大德入其國，厚餉官守，悉得其織曲。

이라고 하는 기사에서 알 수 있지만, 그 본래 의도는 「且觀豐」 이  
다. 「豐」이라는 것은 隋의 정도 뒤 고구려 지배층의 동요・분열 양  
상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泉蓋蘇文에 의한 실권  
장악임에 틀림없다. 진대덕은 그 탐색을 명받았던 것이다.

둘째는 진대덕의 性行이다. 그의 현지에서 실제 행동은 『資治通  
鑑』 卷196 貞觀 15년(641년)조에,

八月己亥，自高麗還。[陳] 大德初入其境，欲知山川・風俗，  
所至城邑，以綵綺遺其守者，曰「吾雅好山水，此有勝處，吾欲  
觀之。」守者喜導之，遊歷 無所不至。

라고 기록되어 있어 잘 알 수 있다.<sup>12)</sup> 고구려의 지방관을 贈物로

12) 陳大德의 고구려에서의 행동에 대해서는 『冊府元龜』 卷657 奉使部 機  
變 貞觀 15년조. “貞觀十五年，[陳]大德使于高麗，初入其境，欲窺其國俗，  
每至城邑，輒以綵綺遺其官守，莫不權悅，大德因謂之，曰「吾性好山水，所

농락하고, 산천·풍속의 실정을 자세히 정탐했다고 한다. 앞서 나온 「山川·風土」가 여기에서는 「山川·風俗」으로 표기되어 있다. 즉 현지에서만 알 수 있는 확실한 정보를 수집한 그의 첩보활동은 충분한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직방낭중 본래의 직무와 더불어 그의 독자적 성행도 엿보이는 것이다.

셋째는 『高麗記』의 산천 중시이다. 확인되는 한 同書는 7분야 22항목으로 성립되었다. 그 중 (a)官名, (b)部名, (g)衣服의 6항목은 이른바 「風土」·「風俗」에 속하고, (d)山名과 (e)水名은 「山川」이며, 우선은 11항목이다. 그런데 『通典』 ⑦魯陽山 항목에 「魯城은 그 위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魯城은 魯陽山에 축조된 산성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翰苑』 註의 ⑩焉骨山 항목에도 「남북의 좁은 입구에 쌓고 끊어 성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대규모 산성이며 그 유명한 烏骨城임에 틀림없다.<sup>13)</sup> 주지한대로 고구려는 예부터 山丘를 이용하고, 정교하게 산성을 쌓아 정치적 군사적인 근거지로 해왔다. 따라서 (c)城名은 (d)山名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오히려 (d)山名으로 주목되는 실체는 (c)城名에 집약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며, 이 경우 (c)城名을 「山川」에 포함하여 이해해도 좋다. 나아가 (f)版圖는 즉 「山川」의 정치적 군사적인 총체 그것이다. 결국은 다소 넓은 의미로 이상 4분야 16항목이 광의의 「山川」에 속한다고 봐도 좋고, 이것으로 전체의 7할 이상을 점하고 있다. 여기에서 奉使復命書로써 『高麗記』의 특수성이 지적된다. 진대덕은 풍속은 물론, 분명하게 산천에도 눈을 두고 있던 것이었다.

넷째는 同書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산천 기사는 각 산천의 명

---

不能忘, 在此何處有林泉勝地, 吾欲時往遊踐。」, 其國人信之, 遇有好山水之處, 輒引大德觀之, 遂得在道屈曲.” 『新唐書』 東夷傳 高麗條. “大德入其國, 厚餉官守, 悉得其纖曲.” 도 참조바란다.

- 13) 焉骨山의 「焉」은 보통 烏骨山 「烏」의 魯魚 오류라고 한다. 아마 이 내용이 옳겠지만 同山은 또 「屋山」이라고도 쓰여 있다. 이들 「焉」·「烏」·「屋」은 모두 音通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모두 잘못이라고는 단정해두지 않는다.

칭·방향·거리와 내력 등 기본적인 사실 외, 몇 군데 記述이 특수 구체적이고 실감난다. 예를 들면 『翰苑』 註의 ⑩馬多山 항목에 「30리 사이를 오직 말로만 다닐 수 있고」, 「길 동쪽으로 석벽이 있는데, 그 높이는 몇 길이다. 아래로 석실이 있는데, 천 명을 수용할 만하다」라고 보인다. 언뜻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유사시 전술적 관점으로 본다면 간신히 軍馬가 통과하는 山中 長路와 군대가 숨는 장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실로 귀중한 군사 정보임에 틀림없다. 예를 들어 ⑪焉骨山 항목의 「이는 즉 夷蕃樞要의 장소」 등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지적이 보이지 않아도, 각각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 기술이 있다. 그것은 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翰苑』 註 ⑬馬訾水 항목의 「지나는 나루터는, 모두 大船을 모아두었다. 그 나라가 이를 의지하여, 천연의 요새지로 삼는다」(『通典』의 ⑫도 같음), ⑭黃水 항목의 「또 물굽이와 연못, 지류가 많다. 양쪽 물가에 긴 버들이 자라는데, 집집마다 병마를 숨길만 하다」 등이라고 하여, 역시 중요한 군사 정보를 전하고 있다. 『高麗記』의 산천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 내용은 진대덕의 군사 정보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들어간 것이다.

다섯째는 진대덕과 같은 첩보 활동자이다. 그는 봉사 때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고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 그것은 다분히 직무상 경험에 근거했겠지만 그 개인의 성행·능력에 의한 바도 컸다고 생각된다. 모든 봉사가 국제적인 첩보 활동의 기회로 제공된 것은 극히 보통의 일이다. 진대덕은 고구려를 상대로 그 나름의 방법을 통해 唐初인 641년, 그것을 적확하게 실행하여 뛰어난 보고서 『高麗記』를 찬술하였다.

예를 가까이서 찾으면, 『高麗記』와 아울러서 저명한 書冊으로 그보다 약간 이른 시기에 속하는 裴矩撰 『高麗風俗記』一卷이 있었다. 지금은 찬자·서명·권수가 전할 뿐이지만, 고구려의 「風俗」을 바로 가리키는 書名을 가지고 있는 것과 찬술자가 「裴矩」라는 사실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外夷의 「風俗」이 국가적인 중요 정보임은 前記한 바이다. 또 돌이켜 생각하면 607년, 隋 煬帝가 突厥 啓明可汗

의 장막으로 행행할 때 가한에게 와 있던 고구려의 사자가 目擊된다. 보통은 이 사건이 隋의 고구려 정토 원인이며 이윽고는 멸망의 원인으로도 되었다고 하지만, 그때 고구려왕을 직접 唐으로 朝勤시키는 策을 상주한 것이 배구이다. 여기에서 그와 고구려의 인연이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를 견문할 기회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가 고구려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것은 同上書 찬술 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는 황제의 西域諸國 병탄 야망에 따라, 직접 「西域의 風俗 및 山川의 險易, 君長の 氏族, 物産・服章을 찾아, 『西域圖記』 三卷을 찬술하였다. 입조하여 이를 아뢰자, 양제는 크게 기뻐하였다」고 하고, 또 날마다 황제 곁에 근시하여 서방 정책의 고문을 맡았다고 한다.<sup>14)</sup> 배구는 이미 국가적인 큰 첩보 활동자, 정보 수집자로서, 확고한 실적을 가지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활동 시기, 활동 규모, 西와 東이라는 활동 무대, 관직·신분상 등의 차이는 있어도, 그의 활동 양식은 진대덕의 그것과 거의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 활동 대상에 모두 고구려를 포함하는 공통의 접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에서도, 언달아 활약한 兩者는 좋은 비교 대상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5)</sup>

14) 『舊唐書』 卷63 및 『新唐書』 卷100 裴矩傳.

15) 高句麗史를 거슬러 올라가면 생각나는 것이 『魏書』 卷100 高句麗傳에 보이는 435년의 사건이다. 魏는 이때 李敖를 遣使하고 그는 평양으로 갔던 고구려의 實情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여 복명하였다. 한편 중국 측의 과도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고구려 측의 방위 조치도 필요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 사신의 행동 자유를 빼앗아 대항한 일을 전하는 『隋書』 卷81 高句麗傳 開皇 17년(수정하여 開皇 10년, 西曆 590년)조 참조. 또 그 무렵 고구려를 포함한 朝鮮三國間에도 첩보 활동은 대체로 왕성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直木孝次郎, 1979, 「古朝鮮における間諜について」, 『橿原考古學研究所論集』 5 참조.

#### IV. 『高麗記』와 『奉使高麗記』

『翰苑』註 所引의 『高麗記』가 소개되자 內藤湖南과 池内宏 등은 일찍부터 『舊唐書』卷47 經籍志 및 『新唐書』卷58 藝文志의 地理類에서 보이는 찬자 미상 「奉使高麗記一卷」에 주목하였다. 이를 같은 책이라고 판정한 것은 吉田光男氏인데<sup>16)</sup> 기본적으로는 오류는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高麗記』는 고구려에 봉사한 진대덕의 찬술이고, 『奉使高麗記』는 문자대로 고구려에 봉사할 때의 기록이다. 찬술 연대와 그 내용·목적·성격은 그렇게 떨어져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양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양자의 친밀성을 전제로 하여도 굳이 동일한 서책인가 라고 반문한다면, 누구나 잠시 주저될 것이다. 왜냐하면, 『奉使高麗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단서가 없고, 현재 同一書라고 단정할 만한 확증도 없기 때문이다. 간단한 의문으로, 진대덕의 『高麗記』에 「奉使」라고 하는 표기가 전해지지 않는 점, 『奉使高麗記』는 찬자 미상인 점(예를 들면, 『高麗風俗記』의 찬자는 「裴矩」라고 명기됨), 당시에 고구려로의 「奉使」復命者は 진대덕으로 한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반드시 同一書說을 부정할 근거로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지금으로써는 同一書說을 재고할 여지가 없지도 않다고 하는 점이 實狀이다. 여기에서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通典』이다.

『通典』高句麗條의 서술은 대략 시기를 거슬러 唐代에 이른다. 문체의 『高麗記』逸文, 즉 5분야 13항목이 기재되었다. 그 전후의 연대를 점검하면, 직전에 (a)「大唐武德四年」(621年)조 기사가 있으며 高句麗使의 조공을 전한다. (b)『高麗記』일문 뒤에 또다시 (a)武德四年條에 이어서 명시된 연대는 (c)「[武德]七年二月」(624年)이다. 同條는 고구려왕의 내부 기사, 고구려왕으로의 책봉 기사이다. 이러한

16) 吉田光男, 1977, 17쪽.

『通典』 기사(a)~(c)의 세 구성에서, 同一書 문제를 음미할 단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b)의 연대이다. 시기를 쫓아 『通典』의 기술 방법에서 보면, 그것은 직전의 (a)621년에 관계한다고 추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太平寰宇記』·『宣和奉使高麗圖經』이 이러한 연대를 명시한 것은 어쩌면 『通典』을 모방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그 자체는 솔직한 해석이었다. 다소 무리를 하여도, 고작 (a)621~(c)624년 사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주지한대로 『高麗記』는 641년의 견문을 기술한 것이며, 대략 20년 여 남짓 뒤의 찬술이기 때문에 上記의 추정과는 모순된다. 이것에서 반대로, 『通典』 편찬 당시에는 그 근거로 한 『高麗記』는 唐初의 것으로 알려져 있던 정도이며, 정확한 찬술 연대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아마 찬술자 이름도 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通典』은 막연하게 연대를 짐작할 수 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高麗記』를 (b)부분에 삽입하고 말았던 것이다.

둘째는 (b)의 세 단락 구성이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은 (b)부분에는 『高麗記』 뿐 아니라, 다른 두 종류의 기사도 합쳐 삽입되었고 그 때문에 모두 세 단락의 구성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이다. 최초의 제1단락은 당연히 『高麗記』에서의 인용이지만(602字), 다음으로 제2단락은 沈叔安에 의한 고구려로의 도교 전도를 전한다(42字). 제3단락은 [泉]蓋蘇文에 의한 권력 집중으로, 그것에 의한 고구려왕 改廢가 주제이며 그 개인에 대한 묘사에도 박력이 있다(101字). 이들 기사는 모두 연대를 명시하지 않고, 이 공통점도 또 前記한 『通典』의 연대순 기술법에 비추어 약간 의심스럽다. 그 의심이 생기는 이유는 (b)의 세 단락 기사가 본래 전체였던 것, 하나였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셋째는 각 단락의 연대이다. 제1단락의 『高麗記』는 반복할 필요도 없는 641년의 견문기이다. 제2단락의 심숙안에 의한 도교 전도와 제3단락의 개소문에 의한 고구려왕 改廢는 高句麗史上の 유명한 史實이

다. 이것을 문헌에 비추어 보도록 하겠다. 먼저 도교 전도는 『舊唐書』 東夷傳 高麗條, 『新唐書』 東夷傳 高麗條, 『資治通鑑』 卷190 등에 의하면, 唐 高祖는 고구려왕 建武를 上柱國 遼東郡王 高麗王으로 봉했는데, 冊封使인 심숙안에게 명하여 天尊像과 道士를 동반하여 고구려에 보내고 「老子」를 강론시켰다고 한다. 이때가 624년이였다. 다음으로 고구려왕 改廢는 『舊唐書』 卷3 및 同書 東夷傳 高麗條, 『新唐書』 東夷傳 高麗條, 『資治通鑑』 卷196 貞觀 16년 11월 丁巳條 등에 의하면, 蓋蘇文은 쿠데타를 단행하여 국왕인 건무를 살해한 뒤 王弟의 子인 寶藏을 왕위에 올리고 국정을 전제했다고 한다. 642년의 사건으로 寶藏은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 되었다.

그러면 각 단락의 연대는 각각 641년→624년→642년으로 순서가 맞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b)제3단락=642년의 뒤에 (c)624년이 붙고 이것은 (b)제2단락=책봉사 파견과 같은 사실이며, 따라서 여기에서는 연차상과 내용상의 정합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前記의 『高麗記』도 포함하여 대체로 (b)의 세 단락에 대한 각각 정확한 연차가 알 수 없었던 것을 나타낸다. 그와 동시에 (b)가 전체로써 일련·일체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추정을 한층 더 강하게 하는 것이다.

넷째는 각 단락 기사의 성격이다. 제1단락의 진대덕 봉사 기록, 즉 『高麗記』에 대해서는 이미 서술하였다. 제2단락의 도교 전도는 624년 책봉사로서 고구려 현지로 간 심숙안이 시행하고 이것을 복명한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물론 봉사 기록이다. 한편 제3단락=고구려왕 개폐 쿠데타에 대해서는 다소 복잡하다. 『資治通鑑』에 의하면, 쿠데타에 대한 첫 소식은 642년 11월 丁巳에 營州都督인 張儉이 가져왔다고 하며, 그 뒤도 다양한 성격의 정보가 계속 입수되었을 터이다. 따라서 제3단락의 성격은 특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도 제1·2단락의 경우와 같이 봉사 복명서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쿠데타 직후부터 고구려 정토까지의 遣使로는 (一)643년 6월 丁亥에 귀국한 鄧素, (二)同年 閏6月[戊辰]에 출발한 冊封使(성명 미상), (三)同年

9월 庚辰 출발한 相里玄獎의 사례가 있다. 이 중 책봉사의 경우는 국가적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는 있지만, 다분히 형식적 의례적인 견사이며 특별한 기사도 남아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이렇다할 만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주의할 점은 鄧素와 相里玄獎의 경우이다. 먼저 등소의 경우는 귀국한 사실만 전할 뿐이다. 의문스러운 점은 출발 시기와 그 목적 등에 대해 전혀 불분명하고, 더욱이 귀국하자마자 고구려로의 군사적 압력을 요청하고 있다. 이것은 정체불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급격히 전개하고 있던 고구려 정세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은밀한 遣使였던 것은 아닐까. 그 첩보 활동으로 얻은 것은 쿠데타로 상징되는 蓋蘇文의 권력 집중과 군사적 긴장 고조에 관한 대응책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반해 상리현장의 경우는 제법 명백하다. 고구려와 백제의 영토 침공을 견디지 못하던 신라가 출병을 요청하자, 당 태종이 「璽書」를 고구려로 보내 신라 공격 정지를 「說諭」한다는 목적이었다. 『舊唐書』 東夷傳의 高麗條 및 新羅條에 의하면, 고구려는 예전 일을 빌미로 신라 공격을 정당화하였으며, 당 측은 공격을 중지하지 않으면 내년 출병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 遣司農丞相里玄獎, 賚璽書往, 說諭高麗, 令勿攻新羅. 蓋蘇文謂玄獎曰 「高麗·新羅, 怨隙已久, 往者隋室相侵, 新羅乘釁, 奪高麗五百里之地城邑, 新羅皆處有之, 自非反地還城, 此兵恐未能已.」 玄獎曰 「既往之事, 焉可追論.」 蘇文不從.

○ 太宗遣相里玄獎, 賚璽書賜高麗曰 「新羅委明國家, 不闕朝獻, 爾與百濟, 宜卽戢兵, 若更攻之, 明年當出師, 擊爾國矣.」

상리현장은 당을, 개소문은 고구려를 대표하는 형태로 양자가 마주하는 담판이었다. 이 담판은 결렬되고 이를 계기로 당의 고구려 정도가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면담 당사자이다. 즉 상리현장은 이 奉使行을 통해 왕도 평양에서 개소문의 행동과 사람됨을 분명히 확인했음에 틀림없다.

이처럼 쿠데타 뒤의 상황을 검토해보면, 제3단락의 성격에 대해서 논단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지만, 그 정보를 제공한 자는 등소나 상리 현장 중, 굳이 말한다면 상리현장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개소문과 직접 접촉한 것이 확실한 인물은 그뿐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 근거는 봉사복명서류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처럼 제3단락도 봉사복명서에 근거라고 한다면, 문제의 (b)는 전체로써 역시 봉사복명서에 근거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다양하게 음미해 본 결과, (b)구성은 모두 봉사복명서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세 단락=세 종류 복명서의 찬술 연대와 찬술자는 모두 명시되지 않고, 오히려 없어지기도 하였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b)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정리인 것, 본래 일련인 것, 일체인 것으로 취급되었다. 이러한 취급을 받은 (b)는, 『奉使高麗記』에서 일괄 인용된 부분이 아닐까.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하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경우 『奉使高麗記』는 唐初인 武德·貞觀年間に 고구려와 관련된 複數의 봉사복명서를 바탕으로 편찬한 서책인 것이다. 그 중심은 당연히 (ア)진대덕에 의한 641년 당시의 견문기 『高麗記』지만, 그 외에 적어도 (イ)심숙안에 의한 624년의 복명서와, (ウ)상리 현장에 의한 643~644년의 복명서도 모았다. 同書는 全「一卷」이라고 전하기 때문에, 모두 상세·浩瀚은 아니다. 『高麗記』를 중심으로 하고 그 외는 보충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혹은 부록과 같은 형식을 취했다고 생각되는데, 그 실태는 분명하지 않다. 그 외에 부언할 점이 있다면, 『通典』(b)에 남겨진 각각의 글자 수(前掲)에 따라, 그 분량 비율의 개략을 상상할 뿐이다(대략 730:102:105의 비율).

이상과 같이, 本章에서는 『高麗記』는 곧 『奉使高麗記』라고 하는 同一書說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兩書가 同一書가 아닐 경우의 가능성을 追及하고 그 개략을 서술해보았다. 그럼에도 兩書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高麗記』는 당시로써는 뛰어난 봉사복명서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 V. 『高麗記』와 唐의 高句麗 征討

우수한 봉사복명서인 『高麗記』에서 주목되는 것은 山川 등의 지명 중시이다. 여기에서는 진대덕의 고구려 군사 정보에 대한 높은 관심이 드러나 있다. 이미 살펴봤듯이 복원할 수 있는 한, 4분야의 16항목이 이것에 포함된다. 그 중 (f)판도의 1항목은 영지의 연혁을 서술할 뿐으로, 당시 정보를 그대로 전하는 지명은 (c)城名, (d)山名, (e)水名의 3분야에 속하는 15항목으로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모든 항목의 7할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낸다.

그 중 각 항목은 그것에 관련하는 외의 지명, 즉 (I)舊名·別名, (II)方向·距離의 기점으로 되는 지명, (III)그 외의 관계하는 지명 등을 기록하여,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lt;표 2&gt; 『高麗記』地名項目整理表

項目	I	II	III
① 南蘇城		新城	
② 建安城	[漢] 平郭城	國	
③ 國內城	[漢] 不耐城	國	
④ 遼東城	[漢] 遂城縣		
⑤ 馬多山		國	
⑥ 焉骨山	屋山	國·平壤	
⑦ 銀山		安市	
⑧ 碣石山			[樂浪] 遂城縣, 遼水, 長城
⑨ 魯陽山		平壤城	魯城
⑩ 葦山		魯城	涇水
⑪ 大遼水			安市
⑫ 小遼水			遼山, 大遼水
⑬ 大梁水		國	小遼水
⑭ 馬訾水	淹水, 鴨渌水	遼東, 平壤, 遼水	國內城, 平壤城, 靺鞨白山, 鹽難水
⑮ 黃水	遼澤		

上表의 (II)에는 방향·거리의 기점으로써의 「國」이 다수 보인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고구려 왕도인 「平壤(城)」을 가리킨다. 焉骨山の

경우 「國」(方向)과 「平壤」(方向・距離)이 重記되어 있는데, 진대덕이 적어도 두 번에 걸쳐 정보를 수집하였음을 의미한다. 또, 전체 15항목=15지명 중, 절반에 가까운 7지명<sup>17)</sup>의 기점이 「[高句麗]國=[王都]平壤」이다. 고구려에 관계하는 기사로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이것을 진대덕이 평양에서 첩보 활동을 한 성과로 본다면, 그 군사적인 의미와 부합한다고 짐작된다.

각 항목의 15지명(①~⑮)과 (Ⅰ)의 舊名・別名 외에, 그와 중복되지 않는 (Ⅱ)와 (Ⅲ)가 주목된다. 그것은 (Ⅱ)의 新城・平壤[城]・安市[城]・魯城과, (Ⅲ)長城・溟水・遼山・安平[城]・靺鞨白山・鹽難水이며, 합쳐서 10지명이다. 이 중 長城이란 중국의 만리장성이고, 요산과 말갈 백산은 모두 수원지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면, 다음의 7지명(⑩~⑲)이 남는다.

- ⑩ 新城      ⑰ 平壤[城]      ⑱ 安市[城]      ⑲ 魯城      ⑳ 溟水
- ㉑ 安平城      ㉒ 鹽難水

7지명 중에는 그 자체 항목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당시 실정을 전하는 지명으로써 이들을 존중하고자 한다. 결국 『高麗記』 逸文은 고구려의 山川에 대해서 모두 22지명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된다.

15항목 지명을 포함하는 이들 22지명은, 왕도인 평양은 본래부터 모든 고구려 樞要의 지점이며 군사적 거점이었다. 그것은 진대덕이 奉使하고부터 3년 뒤인 644년에 시작한 고구려 征討戰 전개 과정을 통해 실증되었다.<sup>18)</sup> 정토전은 먼저 唐 太宗代, 644~645년의 태종 친정으로

17) 『通典』・『太平寰宇記』에 의하면, 魯陽山・魯城・葦山은 모두 평양을 중심으로 쓰여진 일련의 기사 중에서 보이기 때문에, 葦山の 기점도 평양으로 봐도 좋다. 그렇다면 평양을 기점으로 하는 것은 8지명으로 되어, 과반수에 달한다.

18) 唐初 고구려 征討에 관련한 지명 고증·비정은 만전을 기하고 싶지만, 本稿에서는, 池内宏, 1941, 「高句麗討滅の役における唐軍の行動」, 『滿

시작한다. 『資治通鑑』卷197 및 『冊府元龜』卷117 帝王部 親征條에 의하면, 이때 唐軍은 ①新城(지금의 撫順의 北關山城)·②建安(지금의 蓋縣 부근)·跬蹕=③安市城(지금의 海城 부근)에서 ‘三大戰’을 벌이고, 玄菟·橫山·蓋牟·磨米·④遼東(지금의 遼陽)·白巖·卑沙(혹은 沙卑)·麥谷·⑦銀山(지금의 海城~岫巖 사이)·後黃의 10성을 함락했다고 개괄한다. 이들 지명과 諸種 사서를 아울러 고찰하고, 遼澤=⑤黃水→①[大]遼水→遼東→安市城으로 이동한 태종 행영의 소재를 중심으로 또 당군에 의한 實戰 行程을 고찰해본다. 이를 북쪽에서 순서대로 정리하면, 첫째는 ②小遼水(지금의 渾河)를 거슬러 올라가 현도·신성·개모성까지, 대략 撫順의 東邊 부근에 도달하였다. 또 하나는 ③大梁水(지금의 太子河)에 접하여 요동·백암까지, 대체로 요양~本溪湖 사이에 이른다. 그 南方으로는 銀山에 도달하고, 나아가 해상에서는 요동반도 연안을 따라, 비사성(지금의 大連 부근)에 도달하였다. 그 뒤 647년, 육로로는 다시 小遼水를 거슬러 올라가, 지금의 蘇子河를 따라 ①南蘇城(사르후 부근)·木底城(지금의 木奇 부근)까지 침공하였고, 翌 648년에는 海路로 ④鴨綠水=馬訾水를 100리 정도 들어가, 泊汜城(지금의 丹東 부근)에 도달하여, 그 前年보다는 해륙으로 다소 깊게 들어왔다. 그러나 고구려의 서방 방어 라인을 돌파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史官 스스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개괄하였다.

이처럼 唐軍의 전개 모습을 보면, 고구려의 강한 저항으로 요동반도 서측을 타격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당군이 도달한 것은 예의

---

鮮地理歷史研究報告』 16, 東京帝國大學文學部(1960, 『滿鮮史研究』 上世編 第2冊, 吉川弘文館)를 중심으로, 南滿州鐵道株式會社, 1913, 『滿州歷史地理』 1·2; 南滿州鐵道株式會社, 1913. 『滿鮮歷史地理』 1; 津田左右吉, 1915, 「安東都護府考」,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 東京帝國大學文學部(1964, 『津田左右吉全集』 11, 岩波書店); 島田好, 1927, 「高句麗の安市城に就いて」, 『歷史地理』 49-1; 今西春秋, 1935, 「高句麗の南北道と南蘇·木底」, 『靑丘學叢』 22; 池內宏, 1940, 「撫順の史蹟」, 『考古學雜誌』 20-6(1951, 『滿鮮史研究』 上世編, 祖國社); 曹汎, 1980, 「靉河尖古城和漢安平瓦當」, 『考古』 1980年 8期 등을 참조하였다.

22지명 중, 딱 절반에 해당한다. 여기에 고구려의 屈強한 군사 거점으로 유명한 烏骨城(⑥焉骨城, 지금의 鳳城)을 더하면, 절반을 넘는 12지명이 된다.

다음으로 高宗代로 들어가면, 655년에는 遼水를 건너 침입했는데, 貴端水(=小遼水의 中流域) 근처, 신성의 서남방에서 저지되었다. 658년에도 다시 同水에 접하여 신성에 도달하였으며, 또 쫓 659년에는 나아가 신성 주변의 蕘山·석성, 즉 무순 방면에 이르렀다. 당은 이처럼 줄곧 渾河로 출병하였지만 이것은 교란 전법 그 이상은 아니었다.

그런데 백제 멸망 뒤인 661~662년, 고종은 고구려 정도에도 의욕을 드러내어 수륙 양면으로 침공하였다. 육로를 올라간 唐軍은 깊숙이 한반도 방면으로 나아가고, 鴨綠江을 건넜지만 저지당하였다. 한편 수군은 왕도 평양을 노리고 한반도를 직접 돌파하여, ⑩渭水(지금의 大同江)·蛇水(지금의 合掌江)와 葦島에서 전투하고, 이어서 ⑪平壤城을 포위하였다. 「葦島」의 해석은 분명하지 않지만, 평양 근처인 것은 확실하다. 또 「葦」라는 명칭과 『高麗記』 逸文의 「[魯城의] 西南 20리에 葦山이 있고, 南은 渭水에 임한다」라고 설명에서 ⑩葦山과 관계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例의 22지명 중 더욱이 3지명을 부합하고, 합쳐서 15지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魯城은 지금의 大聖山城으로 비정되고 또 葦山에 대해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 平壤府의 山川條에, 上記 逸文과 거의 같고, 葦山은 「[平壤]府의 西南 20리에 있고, 南으로는 渭水에 임한다」라는 문장이 있다.

그런데 그 뒤, 집권자인 蓋蘇文이 사거하고 고구려 지도층에서 큰 내분이 일어났다. 개소문의 장자인 泉男生이 唐으로 항복하면서 원조를 요청하였다. 당에서는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고 667년에 고구려 정도 분위기를 고조되었다. 마침내 이는 고구려의 운명을 건 전투가 되었고 고구려는 668년 멸망을 맞이한 것이다. 처음 男生은 ③國內城(지금의 集安) 등 6城과 南蘇·木底·倉巖 등 3城을 제압했는데, 당군이 신성을 함락시키고 남생의 영토를 인수받게 된다. 즉 당은 중국에서 고구려로 연결되는 교통 네트워크를 수중에 넣었던 것이다. 大遼水(遼

河)→小遼水(渾河)→小遼水 上流(蘇子河)→鹽難水 支流(富爾江→新開河)→②鹽難水(渾江)→馬訾水(鴨綠江)로 통하는 루트는, 예전부터 중국 대륙과 한반도를 연결해 온 주요 간선이었다. 이것이 唐의 손으로 들어간 이상은, 고구려의 餘命은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여기에 부합하는 지명 둘을 더하면 합계 17지명으로 된다.

다시 남은 곳은 ⑤馬多山, ⑧礪石山, ⑨魯陽山(지금의 평양 大聖山), ⑩魯城, ⑪安平城(지금의 丹東 동북, 尖古城) 뿐이다. 현재 사료를 博搜한 것은 아니지만, 이 지명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당시의 戰史에 그 이름을 남긴 증거는 없다. 단 前記한대로 魯城은 대성산의 노양산에 축조되는데, 왕도 방위와 연결된 大聖山城이다. 安平城은 압록강 하구에 진수된 漢 낙랑군 이래의 名城으로 모두 요충지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각 고구려 최후의 날을 맞이한 것이다. 진대덕의 奉使로부터 대략 30년 뒤의 사건이었다.

이상 고구려 정토의 군사적 전개를 통해서 점검해 보면, 진대덕이 가져 온 고구려의 산천 정보는 대단히 군사적 의미가 큰 내용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 정보가 「곳곳에 이르지 않은 곳이 없고」(『資治通鑑』卷196), 「모든 織曲을 얻었다」(『新唐書』東夷傳)라고 하거나, 혹은 「마침내 在道の 굴곡을 얻었다」(『冊府元龜』卷657) 등으로 높게 평가된 것은 당연하다. 진대덕의 봉사 뒤에 시작된 당의 고구려 정토와 그 산천 정보와의 직접적 관계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술해 온 당시의 일반적인 군사 정세와 그의 활동·업적에 대한 높은 평가로 볼 때, 필자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勇斷은 가지고 있지 않다.

무릇 군사 정보라고 한다면, 시시각각 움직이는 여러 정세에 대응하여 최근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 예를 들어 『資治通鑑』卷197 貞觀 18년 7월 신묘조, 및 11월 임신조에 의하면, 태종은 644년의 제1차 정토전을 일으킬 때, 영주도독인 張儉에게 먼저 요동을 공격하게 하여 「이로써 그 勢를 살피고」, 그를 낙양으로 불러 「山川의 險易와 水草의 美惡을 具陳」 시키자, 대단히 기뻐했다고 한

다. 「山川」은 例의 고구려 지세 정보이고, 「水草」는 人馬 등 食料 水와 사료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모두 정토전에 필수 구체적인 군사 정보였다. 정밀도가 높은 군사정보 수집은 다분히 의식적인 성격을 갖기도 하지만, 정토전을 실제로 발동시키는 경우에는 특히 빠트릴 수 없는 활동이었다.

진대덕의 정보는 우수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높게 평가되었고, 고구려 정토의 과정에서 각각의 목적에 대응하여 직접·간접적 다양한 형태로 증용되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고구려 멸망 이후 무렵 『高麗記』는 「山川」에 대해서는 물론, 「風俗」에 대해서도 당시 최신 고구려 정보로 알려졌으며, 이것을 『翰苑』이 참조하고 그 註가 또 이것을 인용하였다. 그 뒤에도 오랫동안 반복 傳繼되어 온 실정에 대해서는 머리말에서 지적해 둔 바이다.

## VI. 맺음말

진대덕이 641년 고구려로 奉使할 때의 복명서에 근거한 『高麗記』에 대해서는 그 평가, 구성과 성격, 類似書와의 異同, 현실적인 의의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우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는 『奉使高麗記』와의 異同 문제이다. 兩書同一說을 가장 유력하게 인정하면서도, 또 異書說 가능성을 추측하였다. 그리고 『奉使高麗記』란 진대덕의 『高麗記』를 중심으로 하고, 적어도 沈叔安과 相里玄獎의 사례를 보충하여 정리한 奉使復命書에 근거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과연 그러하다면 이것은 고구려 정토보다 이전인 唐初의 주요한 봉사기록 집성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둘째는 『高麗記』의 구성과 성격에 대한 문제이다. 同書는 官名·部名·城名·山名·水(河)名·版圖·衣服 등 적어도 7분야에 걸쳐서 순서대로 정리되고, 각 분야 아래에 구체적으로 기술된 항목은 모두 22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城·山·水의 山川 항목이다. 그것은 진

대덕이 의식적으로 탐색한 고구려 산천에 대한 첩보 활동으로, 뛰어난 성과임에 틀림없다. 또 『高麗記』 逸文에 대해 새로운 지적이 가능한데, 이를 포함한 내용은 항목마다 정리·교정하여 本稿 마지막 부분에 게재해 두었다.

셋째는 『高麗記』의 현실적 의의 문제이다. 同書의 山川에 관한 정보는 22지명에 달한다. 그 지명은 모두 고구려의 중요 거점이고, 마침내 시작된 征討戰의 전개 지역 속에서 대부분 追認될 수 있다. 同書가 작전 자료로 사용되었다고 확증할 수는 없지만, 당시는 최신 정확한 고구려 정보로 평가되었다고 생각된다.

넷째는 『高麗記』에 대한 평가 문제이다. 奉使 뒤에 同書의 평판이 높아지고 이윽고 『翰苑』에 영향을 미쳤으며, 거기에 인용·註記되는 등 높은 평가를 얻었던 것이다. 그 뒤도 撰者名과 書名을 빠트린 채 줄곧 각종 사서와 유서에 수록되면서 오랫동안 주목되어 왔다. 그러나 同書 자체는 靖康의 변 중에 湮滅하고 말았다. 단 기묘하게도 일본에서 招來된 西高辻本 殘卷만이 지금 전하고 있어, 『高麗記』의 진가가 새롭게 인식된 것은 진실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唐의 입장이지만 진대덕의 집요한 안목을 통해서 最末期 고구려 정세에 대한 일부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진대덕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시동 걸리고 있던 당과 고구려의 치열한 국제관계, 즉 7세기 前半 동아시아 활동기의 일면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 의미에서 이 『高麗記』는 바로 당시 국제관계의 한가운데에 생겨난 史的 산물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翰苑, 高麗記, 奉使高麗記, 陳大德, 唐太宗

[투고일 : 2019.10.20, 게재확정일 : 2019.11.30]

### [역자 후기]

이 논문은 총 6장(머리말·맺음말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II장에서는 진대덕이 『高麗記』를 편찬한 뒤 인용되는 양상을 살폈다. 『高麗記』에 대한 평가는 편찬 시기가 가까운 『翰苑』으로부터 멀게는 宋代의 『宣和奉使高麗圖經』까지 꾸준히 높았다고 한다. III장에서는 각 서적의 逸文으로 남은 『高麗記』를 수집하고 그 성격을 검토하였다. 『高麗記』는 대체로 『翰苑』의 내용이 가장 풍부한 가운데, 『通典』에도 독자 항목이 보인다. 이를 다시 『太平寰宇記』 등 후대 자료와 비교하면 문자의 異同이 보이고, 각 서적들에 인용된 逸文의 가치도 역시 확인된다고 한다. 내용을 종합하면, 『高麗記』는 대체로 山川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다. 즉 이 서적은 고구려 첩보 활동을 마친 진대덕의 복명서였던 것이다. IV장은 『高麗記』와 『奉使高麗記』와의 관계이다. 분석 결과, 저자는 기존에 언급된 ‘同一書說’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슬며시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일단 두 서적의 긴밀한 관련성까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V장은 唐의 고구려 원정로 현황을 통해 『高麗記』의 가치를 조망하였다. 『高麗記』에 수록된 항목은 唐의 고구려 공격 과정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결국 이 책에 담긴 군사·지리 정보 등이 唐軍에 제공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진대덕의 활동을 통해 고구려-당 관계, 나아가 7세기 초 급격히 변하는 동아시아 국제 관계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앞서 말한대로 『高麗記』는 『翰苑』에 다수 일문이 남아 있어 『翰苑』의 성격을 검토할 때에도 언급되어 왔다. 저자의 이 논문은 현재 後學들이 『高麗記』를 이해하는데, 기본적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다. 현재 한국학계에서도 『譯註 翰苑』이 출판되는 등 모처럼 활황을 보이고 있다. 이 작업이 앞으로의 연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付 『高麗記』의 項目別 校訂逸文 22條>

- (1) \* ……오해에 의한 誤字·衍字로 추정되는 것
- (2) <→>……直前に 있는 文字의 正字로 추정되는 것
- (3) [ ]……脫字로 생각되는 것

① 官位 其國建官有九等. 其一曰吐拵, 比一品, 舊名大對盧, 總知國事, 三年一伐, 若稱職者, 不拘年限, 交替之日, 或不相互服, 皆勒兵相攻, 勝者爲之, 其王但閉宮自守, 不能制禦, 次曰太大兄, 比二品, 一名莫何何羅支. 次鬱折, 比從二品, 華言主簿. 次太大使者, 比正三品, 亦名謂謁者. 次\*皂衣頭大兄, 比從三品, 一名中裏\*皂衣頭大兄, 東夷相傳所謂皂衣先人也. 以前五官, 掌機密謀政事, 徵發兵馬, 選授官爵. 次大使者, 比正四品, 一名大奢. 次大兄, 比正五品, 一名纈支. 次收位使者, 比從五品, 一名儒奢. 次上位使者, 比正六品, 一名契達奢. [次小]使者, [比從六品], 一名乙奢. 次小兄, 比正七品, 一名失支. 次諸兄, 比從七品, 一名翳屬, 一名伊紹, 一名河紹還. \*次\*過\*節, \*比\*正\*八\*品, \*次\*不\*節, \*比\*從\*八\*品, 次先人, 比正九品, 一名<→先>元<→人>, 一名庶人.

② 文官 又有拔古鄒加, 掌賓客, 比鴻臚卿, 以太大使者爲之. 又有國子博士·大學·博士·舍人·通事·典客, 皆以小兄以上爲之.

③ 外官 又其諸大城置偃薩, 比都督. 諸城置處閭近支, 比刺史, 亦謂之道使, 道使治所, 名之曰備. 諸小城置可邏達, 比長史. 又城置婁肖, 比縣令.

④ 武官 其武官曰大模達, 比衛將軍, 一名莫何邏繡支, 一名大幢主, 以\*皂衣頭大兄以上爲之. 次末若, 比中郎將, 一名郡頭, 以大兄以上爲之. 其領千人以下, 各有等級.

⑤ 五部 五部皆貴人之族也. 一曰內部, 卽『後漢書』桂婁部, 一名黃部. 二曰北部, 卽絕奴部, 一名後部, 一名黑部. 三曰東部, 卽順奴部, 一名左部, 一名上部, 一名青部. 四曰南部, 卽灌奴部, 一名前[部], 一名赤部. 五曰西部, 卽消奴部, 一名右部[ ], 一名下部, 一名白部[ ]. 其北部如燕. 內部

姓高，卽王族也，高麗稱無<→高>姓者，皆內部也。又內部雖王宗，列在東部之下，其國從事，以東爲首，故東部居上。

⑥ 南蘇城 [南蘇]城，在新城北<→西>七十里山上也。

⑦ 建安城 平郭城，今名建安城，在國西。本漢平郭縣也。

⑧ 國內城 不耐城，今名國內城，在國東北六百七十里。本漢不而縣也。

⑨ 遼東城 [遼東]故城南門有碑，年久淪沒，出土數尺 卽耿夔之碑者也。

⑩ 馬多山 馬多山，在國北，高驪之中，此山最大，卅里間唯通達馬，雲霧歛蒸，終日不霽。其中多生人參·白附子·防風·細辛。山中有南北路，路東有石壁，其高數仞，下有石室，可容千人，室中有二穴，莫測深淺。夷人長老相傳云「高驪先祖朱蒙，從夫餘至此，初未有馬，行至此山，忽見群馬出穴中，形小而駿，因號馬多山也。」

⑪ 焉骨山 焉骨山，在國西北。夷言屋山，在平壤西北七百里。東西二嶺，壁立千仞，自足至頂，是皆蒼石，遠望巉巖，狀類荊門三峽，其上無別草木，唯生青松，擢幹雲表。高驪於南北峽口，築斷爲城，此卽夷蕃 樞要之所也。

⑫ 銀山 銀山，在安市東北百餘里。有數百家採之，以供國用也。

⑬ 喝石山 喝石山，在漢樂浪郡遂城縣。長城起於此山，今驗長城，東截遼水，而入高麗，遺趾猶存。

⑭ 魯陽山 又平壤東北有魯陽山，魯城在其上。

⑮ 葦山 [魯陽山] 西南二千里，有葦山，南臨沮水。

⑯ 大遼水 其大遼水，源出靺鞨國西南山，南流至安市。

⑰ 小遼水 小遼水，源出遼山，西南流與大遼水會。

⑱ 大梁水 大梁水，在國西。出塞外西南流，注小遼水。

⑲ 馬水 馬訾水，高驪一名淹水，今名鴨綠水，其國相傳云「水源出東靺鞨國白山，水色似鴨頭，故俗名淥水」。去遼東五百里。經國內城南，又西與一水合，卽鹽難水也，二水合流，西南至安平城入海。高驪之中，此水最大，波瀾清澈，所經津濟，皆貯大船，其國恃此，以爲天塹。今案，其水闊三百步，在平壤城西北四百五十里，遼水東南四百八十里也。

⑳ 黃水 其水闊百餘步，平流清深。又多灣潭枝脈，兩岸生長柳，家密可藏兵馬。兩畔彌平，總名遼澤，多生細草·萑蒲，毛群·羽族，朝夕相霧，須

與卷斂，狀若樓稚，卽『漢書』所謂蜃氣，是也。

① 領地 漢樂浪·玄菟郡之地，自後漢及魏爲公孫氏所據，至淵滅，西晉永嘉以後，復陷入高麗，其不耐·屯有·帶方·安市·平郭·安平·居就·文城，皆漢二郡諸縣，則朝鮮·濊貊·沃沮之地也。

② 錦布 其人亦造錦，紫地纈文者爲上，次有五色錦，次有雲布錦。又造白疊布·青布，而尤佳。又造鄣，曰華言接籬，其毛則鞣鞞豬髮也。

【參考文獻】

『後漢書』 『隋書』 『舊唐書』 『新唐書』 『舊五代史』 『翰苑』  
『唐六典』 『通典』 『太平寰宇記』 『冊府元龜』 『資治通鑑』  
『宣和奉使高麗圖經』

京都帝國大學文學部印行, 1922, 影印 『翰苑』.

宮崎市定, 1959, 「三韓時代の位階制について」, 『朝鮮學報』 14(1976,  
『アジア史論考』 中, 朝日新聞社).

今西龍, 1932, 『宣和奉使高麗圖經』, 近澤書店.

今西春秋, 1935, 「高句麗の南北道と南蘇・木底」, 『青丘學叢』 22.

吉田光男, 1977, 「『翰苑』註所引「高麗記」について」, 『朝鮮學報』 86.

金哲垓, 1956, 「高句麗・新羅の官位組織の成立過程」, 『李丙燾博士華  
甲紀念論叢』, 一潮閣.

南滿州鐵道株式會社, 1913. 『滿鮮歷史地理』 1.

南滿州鐵道株式會社, 1913, 『滿州歷史地理』 1・2.

內藤虎次郎, 1922, 「舊鈔本翰苑に就きて」, 『支那學』 2-8(1970, 『內  
藤湖南全集』 第7卷, 筑摩書房).

內藤虎次郎, 1922, 「影印本『翰苑』跋」, 『翰苑』, 京都帝國大學文學  
部印行.

內藤虎次郎, 1929, 「近獲の二三史料(六)」, 『讀書叢錄』, 弘文堂(1970,  
筑摩書房).

島田好, 1927, 「高句麗の安市城に就いて」, 『歷史地理』 49-1.

武田幸男, 1978, 「高句麗官位制とその展開」, 『朝鮮學報』 86(1989,  
『高句麗と東アジア』, 岩波書店).

末松保和, 1932, 「新羅の軍號『幢』について」, 『史學雜誌』 42-12.

山尾幸久, 1974, 「朝鮮三國の軍區組織」, 『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舎.

矢澤利彦, 1954, 「高句麗の五部について」, 『埼玉大學紀要』 人文社  
會科學編 3.

- 李弘植, 1956, 「淵蓋蘇文に對する若干の存疑」,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一潮閣(1971, 『韓國古代史の研究』, 新丘文化社).
- 竹内理三, 1977, 『翰苑』, 吉川弘文館.
- 池内宏, 1926, 「高句麗の五族及び五部」, 『東洋學報』 16-1(1951, 『滿鮮史研究』 上世編, 祖國社).
- 池内宏, 1940, 「撫順の史蹟」, 『考古學雜誌』 20-6(1951, 『滿鮮史研究』 上世編, 祖國社).
- 池内宏, 1941, 「高句麗討滅の役における唐軍の行動」,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16, 東京帝國大學文學部(1960, 『滿鮮史研究』 上世編 第2冊, 吉川弘文館).
- 直木孝次郎, 1979, 「古朝鮮における間諜について」, 『橿原考古學研究所論集』 5.
- 津田左右吉, 1915, 「安東都護府考」,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1, 東京帝國大學文學部(1964, 『津田左右吉全集』 11, 岩波書店).
- 曹汎, 1980, 「鬻河尖古城和漢安平瓦當」, 『考古』 1980年 8期.
- 湯淺幸孫, 1983, 『翰苑』, 國書刊行會.